

회전형 중입자치료기 가동

췌장암·간암 3기 환자 대상... '폐암' 치료도 곧 시작 하반기 두경부암 등 순차적 암종 확대 계획

난치암으로 불리는 췌장암, 간암을 대상으로 중입자치료가 시작됐다.

연세암병원은 지난달 28일 췌장암 3기 환자 김모 씨(47세, 남)를 대상으로 회전형 중입자치료기 가동을 시작했다. 치료는 주 4회씩 총 12회로 3주간 진행된다.

김 씨는 2021년 췌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항암 약물치료를 시작했다. 진단 당시 종양이 복부 혈관을 둘러싸고 있어 24차례 항암약물치료를 시행했으나 암이 더 악화됐다. 이어 스텐트를 삽입해 황달 증상을 조절한 뒤 약제를 바깥 항암약물치료를 지속하던 중 중입자치료를 결정했다.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10%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본 방사선의학 종합연구소(QST)에 따르면 병기가 진행해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 환자의 경우 항암제와 중입자치료를 병행했을 때, 2년 국소제어율이 80%까지 향상됐다. 국소제어율은 치료받은 부위에서 암이 재발하지 않는 확률로 특정 부위(국소, 局所)를 타깃하는 중입자치료에 있어 치료 성적을 알 수 있는 주요 지표다. 중입자치료 후 2년 생존율이 56%라는 성적도 나오고 있어 우수한 치료 효과가 입증됐다.

간암 3기 진단을 받은 이모 씨(73세, 여)도 김 씨에 이어 중입자치료를 시작했다. 총 4회 조사를 받는 이 씨의 치료는 일주일 만에 끝난다.

2022년 간암 3기 판정을 받은 이 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2023년 재발했다. 이후 수술을 한 번 더 받고 항암 치료를 진행했으나 올해 초 다시 재발해 면역항암제를 복용하던 중 중입자치료를 받기 위해 연세암병원을 찾았다.

간암은 방사선치료가 까다롭다. 신경세포가 적은 탓에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해 발견이 늦어 애초에 병기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받는 데다, 간경화 등으로 간 기능이 저하돼 방사선으로 인한 간독성 위험이 크다. 중입자치료는 정상 세포는 피하

고 암세포에만 고선량 방사선을 집중 타깃하는 특성으로 부작용은 줄어 치료 효과는 높일 수 있다.

일본 군마대학병원에 따르면 중입자치료를 받은 간암 환자의 2년 국소제어율은 92.3%에 달했다. QST의 임상연구에서는 5년 국소제어율 81%를 기록했다. 특히 종양의 크기가 4cm 이상으로 큰 경우에도 2년 국소제어율이 86.7%였고, 2년 생존율은 68.3%로 높았다.

중입자치료는 필요 시 항암화학요법 등 기존 치료 방법과 함께 사용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췌장암, 간암과 같이 발견이 늦어 병기가 진행된 채로 진단돼 수술이 어려운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항암치료 등으로 암 크기를 줄인 뒤 중입자치료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연세암병원은 고정형치료기 1대와 회전형치료기 2대를 보유하고 있다. 치료기는 탄소입자의 조사 각도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수평으로 고정된 각도에서 조사하는 고정형치료기는 좌측과 우측에서 입자선을 조사하기에 적절한 전립선암을 대상으로 한다. 장기가 호흡과 중력에 따라 움직이고 주변에 다른 장기가 있어 다양한 각도로 조사해야 하는 췌장암, 간암, 폐암 등에는 회전형치료기를 사용한다.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회전형치료기는 치료기 안에 환자가 누우면 가장 적합한 각도로 치료기가 회전해 설계된 치료계획에 따라 암세포를 타격한다. 360도 어느 각도에서도 조사가 가능해 해부학적 위치에 맞게 정상 장기를 보호하며 종양 치료 정확도를 최대화할 수 있다.

최진섭 연세암병원장은 "췌장암과 간암은 주변에 정상 장기가 많고 발견이 늦는 경우가 잦아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 많지만, 중입자치료는 이때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기존 항암치료와 새로운 중입자치료의 조화를 잘 이뤄서 최고의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의대 금융섭 교수(방사선종양학과)와 의료진이 호흡동조 확인을 위해 호흡센서를 조정하고 있다.

대신송촌문화재단 어린이병원 발전에 5억원 약정

대신송촌문화재단이 어린이병원 발전기부금으로 5억원을 약정했다. 후원금은 향후 5년에 걸쳐 연간 1억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어린이병원 진료환경 개선과 진료역량 강화 등 주요 추진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연세대학교 총장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이어령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양홍석 대신송촌문화재단 이사장, 김범철·송혁 대신증권 부사장과 윤동섭 총장, 금기창 의료원장, 오정탁 어린이병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홍석 이사장(사진 왼쪽 세번째)은 "저출산시대가 가속화돼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더욱 소중한 상황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며 "환아들이



세브란스라는 최고의 의료환경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조하고자 재단 이념에 맞춰 어린이병원에 후원을 진행하게 됐다"고 기부의 이유를 밝혔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현재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은 저출산, 저수령, 낮은 전공의 지원율 등 어려운 의료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원동력인 아이들이 더욱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대신송촌문화재단과 함께 맞춰 나가기 바란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대신파이낸셜그룹은 1990년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기업이념 아래 대신송촌문화재단을 창립했다. 재단은 학술, 의료, 체육진흥, 소외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초정밀 유방암 로봇 방사선치료 1000례 달성

연세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 로봇-세기조절 방사선치료기(IMRT)인 사이버나이프-M6를 이용해 부분 유방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가 1000명이 넘었다.

방사선종양학과는 지난달 27일 이를 기념해 1000례 돌과 행사를 진행했다.

Robotic-IMRT는 로봇 팔이 총 1만 1728개의 방향에서 세기를 조절하며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어, 주치의가 처방한 방사선량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암 덩어리에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치료 과정 동안 종양의 움직임을 지속해

서 추적하고 바로잡는 종양 추적 시스템이 있어 밀리미터 이내의 정확성을 유지하며 치료할 수 있다.

실제 치료 시 로봇이 환자의 호흡에 맞춰 로봇 팔을 움직여 정밀하게 치료한다. 기존의 방사선치료는 3~6주 이상 매일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긴 치료 기간이 필요했으나, Robotic-IMRT를 이용한 부분 유방 방사선치료는 치료 범위를 줄이고 1회 조사량을 늘려 총 5회로 일주일에 치료를 완료할 수 있다.

의대 김용배 교수(방사선종양학)는 “연세암병원은 저위험 유방암을 안

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정밀 로봇 방사선치료에 대해 세계적인 경험을 축적했다”고 밝혔다.

연세암병원 유방암센터는 최근 두 편의 논문을 통해 로봇 정위 방사선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 2023년 국제학술지 ‘국제 방사선 종양학, 생물학, 물리학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Radiation Oncology, Biology, Physics)에 게재한 연구에서는 저위험 유방암 환자 103명을 대상으로 로봇 정위 방사선치료가 기존의 전 유방 방사선치료(WBI)에 비해 피부 건조, 방사선 피부 반응, 유방 경화



등의 부작용이 적고, 피부염 발생률이 낮다는 결과를 보여줬다.

2024년 ‘라디오테라피 앤 온콜로지’(Radiotherapy and Oncology)에 게재한 연구에서는 수술 후 정위적 부분 유방 방사선 조사(S-PBI)를 받은 79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S-PBI가 초고분할 전 유방 방사선 조사(UF-

WBI)와 비교해 정상 장기에 대한 방사선 노출이 낮고 급성 부작용이 적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배 교수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4월 ‘세계유방암 학술회의 및 한국유방암학회 학술회의’(GBCC)에서 발표하며 연구 성과에 대해 학술상(GBCC Academic Achievement Award)을 수상했다.

연세암병원, 로봇 자동화 물류 시스템 구축한다

연세암병원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과제’를 수주했다. 김용배 연세암병원 부원장을 책임자로 2년간 10억원을 지원 받는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인 이번 과제는 서비스로봇 전문기업 육성과 로봇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국민 편의 증진이 목표다.

사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로봇을 실증하는 ‘사회문제해결형’ 과제와 병원, 산업단지, 호텔, 리조트 등 국민밀접시설의 편의증진을 위한 대규모 로봇을 실증하는 ‘국민체감실증형’ 과제로 나뉜다.

연세암병원은 국민체감실증형 유형에 참여해 관제부터 실제 배송까지 물류 전반을 로봇에 기반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환자 편의를 높이고 의료진 업무는 경감시켜 스마트 병원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과제에는 LG전자, 유진로봇, 폴라리스3D, 리드앤 등 국내 로봇업체들이 참여한다. LG전자는 배송과 안내 로봇을 제작하고, 유진로봇은 물류 로봇을, 폴라리스3D는 냉장 배송 로

봇을 제작한다. 컨소시엄 총괄 역할을 맡은 리드앤은 로봇통합관제 시스템 등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투입하는 로봇만 6종, 14대에 이른다. 검사실, 약제실, 채혈실, 병동 간 혈액, 검체, 약제, 의료소모품을 이송하는 클로이 양분형배송 로봇, 병원 시설·편의시설·진료과를 안내하는 클로이 안내로봇, 고카트 250 물류 배송 로봇 등 실제 업무 영역에 투입하는 다채로운 로봇들은 의료진을 보조할 뿐만 아니라 병원 이용자

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세암병원은 사업의 기본목표인 로봇 실증에만 그치지 않고 구축한 스마트 인프라를 토대로 표준 의료 로봇 서비스모델 확립에 나선다. 사업 이후에도 차세대 로봇 연계가 가능한 로봇 운영 플랫폼을 구축해 사업 결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의료환경에서의 로봇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21회 에비슨 의생명 심포지엄 2024

의과대학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제21회 에비슨 의생명 심포지엄 2024를 개최했다.

의대는 에비슨 박사의 뜻을 의지를 기리기 위해 에비슨 의생명 심포지엄을 2000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심포지엄에 해외 대학과 연구기관의 우수한 석학들을 연자로 초청해 의대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시스템화하고 연구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류 건강의 비밀: 마이크로바이옴 커넥션’을 주제

로 의과대학, BK21 연세첨단의과학 교육연구단, 연세휴먼마이크로바이옴센터, 종근당바이오가 공동 주최했다. 의대 김창훈(이비인후과), 윤상선(미생물학) 교수가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유지환(의생명과학), 나민석(이비인후과), 김백일(예방치과), 이용호(내과) 교수 등 총 11명의 교원이 조직위원으로 참여했다.

심포지엄에는 미국, 유럽, 이스라엘, 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자들이 참여해 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다. 의대에서는 두번째 세션에서 윤상선 교

수(미생물학)가, 세번째 세션에서 최준용 교수(내과)가 각각 ‘TMAO를 낮추기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 심혈관 및 만성 신장 질환 치료에 대한 시사점’, ‘장내 다제내성세균 탈집락화를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법’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총 5명이 연자로 참여했다.

의대는 심포지엄에 앞서 소그룹 미팅 등을 개최하는 등 연구진들이 해외 연자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공동연구 및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은직 의대학장은 “에비슨 의생



명 심포지엄은 교내 연구진과 해외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심포지엄을 통해 해외 연구진들과 깊이 있는 협력관계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비슨 의생명 심포지엄은 지

난 20회부터 청중들을 대상으로 에비슨 박사가 의료전교사로서 조선에 오게 된 과정, 뉴욕 카네기홀에서의 연설, 그가 이룬 여러 가지 업적들을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을 통해 심포지엄의 개최 배경과 의미를 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용인공원 아너스톤과 ‘안치단 기부’ 협약 체결

완화의료센터 저소득층 환자·장기이식센터 장기이식 공여자 지원
전문 사회복지사 상담으로 장지 추천 등 유가족에 혜택

의료원은 지난달 16일 장기이식 공여자에 안치단을 기부할 수 있도록 장묘 전문기관 용인공원 아너스톤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기부 문화 활성화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맺어졌다.

협약에 따라 용인공원 아너스톤은 향후 5년간 매년 10위씩 총 50위의 안

치단을 제공한다.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완화의료센터의 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환자와 뇌사 등 의사유로 장기이식센터를 통해 장기 이식 후 고인이 된 공여자가 지원 대상이다.

안치 절차에 들어서면 유가족은 용인공원 아너스톤을 통해 전문 사

회복지사의 상담을 거쳐 장조, 봉안당 선택 등 전반적인 장지계획 수립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안치단 기부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뇌사 판정 등으로 장기를 공여하신 분들에게 예우를 갚을 것”



이라고 말했다.

용인공원 김동균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및 장기이식 공여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

공헌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 깊은 계획의 일환”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을 목표로 기부 문화의 확대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에서 티카그렐러 단독요법 우수성 확인



홍 명 기



이 용 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에게 3개월 이하 이중항혈소판제 요법 후 티카그렐러 단독요법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의대 홍명기·이용준 교수(내과학) 연구팀은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에게 3개월 이하 이중항혈소판제 요법 후 티카그렐러 단독 투약요법이 기존 12개

월 장기 이중항혈소판제 요법과 비교해 출혈성 사건을 약 46%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유럽심장학회지'(European Heart Journal, IF 39.3)에 게재됐다.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의 스텐트 삽입술 시행 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허혈성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이중항혈소판제 요법은 필수적이다. 미국·유럽심장학회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는 안전형 협심증 환자보다 허혈성 사건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항혈소판제인

티카그렐러를 12개월 동안 유지하는 이중항혈소판제요법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의 강력한 이중항혈소판제 요법은 출혈성 사건 발생을 높일 수 있다.

연구팀은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다기관 무작위 연구인 'TICO'와 'T-PASS'를 기반으로 개별 환자 데이터 메타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TICO'는 국내 3056명의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12개월 이중항혈소판제 요법과 3개월의 이중항혈소판제 요법 후 티카그렐러 단독요법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다. 'T-PASS'는 TICO 연구를 심화시켜 국내 2850명의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12개월 이중항혈소판제 요법

과 1개월 미만의 이중항혈소판제 요법 후 티카그렐러 단독요법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다.

연구팀은 두 연구의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 총 5906명을 대상으로 1년간의 주요 허혈성 사건(총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과 주요 출혈성 사건(BARC 유형 3, 5)에 대해 메타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1년간의 추적관찰 기간 동안 허혈성 사건의 발생은 '12개월 이중항혈소판제 요법군'과 '티카그렐러 단독요법군'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주요 출혈성 사건의 발생은 티카그렐러 단독요법군에서 약 46%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나이, 성별, 임상증상, 스텐트 길이 등에 관

계없이 유지됐다.

또한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가 국내 환자가 아닌 외국 환자들에서도 적용이 가능할지 추가 분석했다. 미국을 주도로 진행한 'TWILIGHT' 연구와 유럽을 주도로 진행한 'GLOBAL LEADERS' 연구에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하위분석 연구를 추가해 2차 메타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외국 환자들을 포함했을 때에도 '티카그렐러 단독요법군'은 '12개월 이중항혈소판제 요법군'과 비교해 국내 환자군과 동일하게 허혈성 사건 발생은 차이가 없으며 주요 출혈성 사건 발생은 낮게 나타났다.

난소암 백금 치료 반응 예측 가능한 AI 개발



치료 결과를 예측하는 AI를 개발해 그 효과를 확인했다.

의대 박은향 교수(병리학)가 고등급 장액성 난소암에서 병리 이미지만으로 백금 기반

이번 연구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IF 16.6)에 게재됐다.

'고등급 장액성 난소암'(high-grade serous ovarian cancer, HGSOC)은 가장 흔한 난소암 유형이다. 1차 치료 옵션 중 하나는 항암 효과를 지닌 성분인 백금(Platinum)을 기반으로 한 항암제 사용이다.

기존에는 난소암의 분자 바이오마커(BRCA, Homologous Recombination Deficiency·HRD status)를 이용해 치료 반응을 예측했다. 하지만 백금 기반 치료는 장기 생존을 보이는 환자가 20%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치료 부작용도 존재해 치료 반응을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박은향 교수는 조직병리학 이미지

로 HGSOC의 백금 기반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고 유효성을 확인했다. AI는 난소암의 생물학적 현상을 이미지로 인지해 반응성을 예측한다.

AI는 세브란스병원과 함께 외부 병원 환자의 치료제 반응이 좋은 그룹과 나쁜 그룹을 분류에 성공했다. 두 그룹은 RNA 유전자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좋은 예후 그룹에서는 면역 반응 관련 유전자 경로가 상향 조절된 반면, 나쁜 예후 그룹에서는 세포외 기

질 관련 경로가 상향 조절돼 있었다.

또 분류 결과는 기존 바이오마커보다 우수한 성능을 자랑했다. AI와 함께 바이오마커를 조합하면 환자 예후를 세부적으로 구분 가능하다.

박은향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한 병리 AI는 우수한 성능으로 난소암 환자의 백금 기반 항암치료 반응성을 예측해냈다"며 "향후 난소암 환자의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환자 예후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현학술상에 이희승·이충근 교수 FET 2024 심포지엄 성료



제31회 우현학술상에 의대 이희승(내과학), 이충근 교수(내과학)가 기초 임상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의과대학은 지난달 27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우현학술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희승 교수는 담관암 환자 종양에 기반한 3D 오가노이드 모델을 구축하고 암 아형을 분류한 연구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담관암은 대표적인 난치성 고형암으로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지만 5년 생존율이 30% 정도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담관암 환자 종양에서 유래한 3D 오가노이드 모델을 만들고 제작 모델로 담관암 아형 분류에 성공했다. 아형별 특성을 조사하고 약물 반응성 차이도 확인했다.

이 교수의 연구는 환자 맞춤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했다고 평가받았다.

임상 분야 수상자 이충근 교수는

HER2 양성 진행성 담도암 환자에서 표준 2차 치료 세포독성항암제인 폴폭스(FOLFOX)에 표적치료제 트라스투주맙(Trastuzumab)을 병용한 요법의 우수성을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했다.

담도암 환자 34명을 대상으로 추적 기간 중앙값 13개월 간 효과를 살폈다. 환자가 보인 치료 결과는 객관적 반응을 29.4%로 연구 목표를 만족시켰다. 무진행생존기간과 전체생존기간은 각각 51개월, 10.7개월을 기록했다. 특히, 6개월 무진행생존율 36.7%, 1년 무진행생존율 49.2%로 기존 약제에 비해 우수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교수가 제시한 병용요법은 연구 결과 발표 이후 사전신청요법을 통해 현재 치료 현장에서 사용 중이다.

한편, 우현학술상은 1993년 최흥재 연세대 명예교수가 학술상 기금을 쾌척해 시작됐다.

의과대학은 지난달 23일부터 양일간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홀에서 2024 세포막수송(Frontiers of Epithelial Transport 2024, FET 2024)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연세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과 보건복지부 의사과학 자양성사업, 대한약리학회 등의 주관으로 열렸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알란 버크만, 존스홉킨스 의대 마크 도노위츠, 미국 국립보건원 쉬무엘 무알렌 등 전세계 9개국 30여명의 저명한 연구자들이 참석해 강연에 나섰고, 국내외 대학교 및 정부기관, 제약사 등 150여명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가해 토론



을 펼쳤다.

심포지엄에서는 인체의 상피세포 세포막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온 채널의 분자생물학적 이온 수송 기전과 관련된 병인 기전, 치료법 탐색 등 전방위적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했다.

또한, 세포 내 신호 전달 및 이온 수

송과 새롭게 발굴된 이온 채널에 대한 생리학적 역할, 이온 채널 및 막수송기의 구조, 세포막으로의 단백질 이동 분자 기전, 호흡기에서의 이온 및 채널 수송, 내이와 신장에서의 이온 수송 채널, 상피세포에 이온 채널 분배, 세포막 수송과 신약 개발 등과 같은 세포 물질이동 관련 다양한 강연이 이뤄졌다.

간호대, 미국 간호대학과 교류 활발

간호대학이 최근 해외 유수의 간호대학들과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간호대학은 학장회의실에서 지난달 20일, 23일 각각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캠퍼스(UT-Austin)와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캠퍼스(UCI)의 간호대학과 상호발전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을 맺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간호학 발전을 위한 교환 및 학생 교류 프로그램 구축, 간호 교육 서비스 개발, 연구 분야 협업 등이 다뤄졌다. 간호대학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과 활발한 교육·연구·학술 활동을 통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소속 교원 및 학생들

에게 연구 기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의금 간호대학장은 "해외 대학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간호대학의 영향력이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간호학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다양한 기관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남, ‘야나’와 자립준비청년에 의료서비스 지원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사단법인 야나(YANA)와 치료가 필요한 시설보호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 22일 병원장실 대회의실에서 야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송영구 병원장과 이수정 야나 대표가 참석했다.

야나는 ‘You Are Not Alone’의 머리글자를 조합한 명칭이다. 보호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동을 돕고자 만들어진 단체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자립에 나서는 청년이다. 시설 퇴소 후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생활비, 주거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지지체계가 미흡해 의료적 문제 등이 발생할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야나에는 자립준비청년 의료지원 체계가 있으나, 협력병원이 1~2차 병원에 한정돼 있어 상급종합병원의 치

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연계의 제한이 있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과 시설보호 아동에 치료 및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수정 대표는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의료적 지원은 단순한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의 관심과 애정으로 느껴질 것”이라며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 가장 어두운 때, 이를 밝혀줄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영구 병원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포기과 무기력을 학습하게 된다고 들었다”며 “아이들이 삶을 스스로 설계

할 수 있는 힘과 희망을 주고, 사회 구성원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야나의 사업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용인, 상반기 협력병원 체결식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 29일 5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협력병원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진료 교류를 통한 지역 사회 의료의 동반성장 및 상생을 목적으로 열렸다. 체결식에는 박윤수 용인세브란스병원 1부원장, 조덕규 진료협력센터 소장을 비롯한 병원 교직원과 늘봄요양병원, 바로웰병원, 용인서울병원, 용인수지병원 등 각 협력병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는 박윤수 1부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 소개 영상 시청, 각 기관의 소개 및 교류 시간으로 이어졌다. 참석한 각 기관에는 협력병원 현판이 수여됐다. 협력병원 관계자는 체결식 이후 통합반응상황실(IRS), 92병동, 진단검사의학과 등 병원 내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윤수 부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 간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진료 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KT꿈품교실, 야구 단체 관람

세브란스병원 KT꿈품교실 학생들이 지난달 19일 KT위즈파크에서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즐겼다. 학생들은 물론 학생 가족, 멘토단, KT꿈품교실을 이끄는 의대 최재영 교수(아비인 후과학),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 직원들은 한데 모여 야구 관람은 물론 다양한 체험활동을 했다.

이날 활동은 야구 관람 전 열기구 탑승 이벤트로 시작했다. 난청 아동과 멘토는 함께 열기구에 탑승해 야구장 전경을 내려다보며 하늘을 나는 이색 체험 시간을 가졌다. 또 KT 위즈 응원단과 기념 촬영을 하고 야구장 단체 응원을 하는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경험했다.



KT꿈품교실 멘토 박민서 씨는 “KT꿈품교실 후배들을 보니 제가 처음 KT꿈품교실에 받을 때 친구를 사귀었던 기억이 떠오른다”며 “오늘 탄 열기구처럼 후배들이 KT꿈품교실에서 각자의 꿈을 찾고 날아오르길 소망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은 2012년부터 KT와 함께 KT꿈품교실을 운영하며 난청 아동들의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인

공와우 수술 및 보장구 등을 비롯해 재활까지 지원하며 난청 아동들에게 소리를 선물하고 있다.

또 KT꿈품교실 멘토단은 KT꿈품교실을 거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 초기 참여자로 이제 성인이 돼 나눔의 선순환을 실현하고자 2023년부터 멘토활동을 하고 있다.

의료원, 2024년도 모범직원 시상식

의료원은 지난달 22일 은명대강당에서 2024년도 모범직원 시상식을 진행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의료원장상

〈개인〉

이튼세(의과대학 사무팀) 김홍(세브란스병원 기획예산팀) 박영신(간호지원팀) 손수진(입원간호2팀) 정윤선(보험심사팀) 정미현(입원간호3팀) 지선영(응급간호팀) 심정화(외래간호팀) 한진희(수술간호팀) 이재경(사회사업팀) 진현경(재활병원 간호팀) 박미선(심장혈관병원 경영지원팀) 박태희(어린이병원 간호팀) 정순미(간호팀) 진기숙(안과병원 간호팀) 이행란(연세암병원 외래간호팀) 박진희(원무팀) 이수지(입원간호1팀) 이경은(강남세브란스병원 외래·응급실간호팀) 이송의(입원간호

1팀) 신희은(수술간호팀) 정금선(간호수석부장실) 서희정(외래·응급실간호팀) 김선미(입원간호1팀) 성이수(치과대학병원 보존과) 오단비(용인세브란스병원 행정교육팀) 정인경(특수간호팀) 김지훈(총무팀) 김중환(병원장실) 임나경(외래응급간호팀) 이진엽(의과학연구처 연구지원팀)

〈단체〉

세브란스병원 수술간호팀 마취회복1파트, 대외협력처 강남발전기금팀, 강남세브란스병원 입원간호2팀 63병동파트, 용인세브란스병원 특수간호팀 수술파트

〈협력업체〉

(주)CJ프레시웨이, (주)에스텍시스템, (주)케이티아이에스, (주)OCS엔지니어링

기관장상

〈개인〉

서강민(의료원 건설사업단 국내사업팀(현:연세동곡의학교육원)) 이경은(치과대학 보존과학교실) 전희정(간호대학 간호학과) 박상옥(세브란스병원 중환자간호팀) 유상희(외래원무팀) 임진서(입원간호2팀) 강현미(행정교육팀) 이소린(입원간호2팀) 박수빈(외래간호팀) 김진아(입원간호1팀) 강민주(중환자간호팀) 오채정(입원간호1팀) 전유정(간호지원팀) 김진영(검진팀) 하지혜(중환자간호팀) 차문영(V팀) 김아영(간호지원팀) 한송희(감염관리팀) 박정순(수술간호팀) 채다희(의무기록팀) 정상훈(의공기술팀) 이태인(진단검사의학팀) 남궁혁(핵의학팀) 이시정(입원간호2팀) 문예진(외래원무팀) 권오은(외래간

호팀) 정재훈(입원간호3팀) 유종호(영상의학2팀) 김하경(입원간호1팀) 변경숙(재활병원 재활2팀) 윤창희(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 현다정(간호팀) 송인선(간호팀) 김민채(안과병원 간호팀) 김예진(간호팀) 정도현(어린이병원 경영지원팀) 소은섭(영상의학1팀) 정선애(간호팀) 박진무(연세암병원 입원간호2팀) 장나리(입원간호2팀) 채은진(특수간호팀) 정미경(특수간호팀) 윤자경(입원간호2팀) 김미정(기획경영팀) 홍재현(입원간호1팀) 간유선(강남세브란스병원 입원간호2팀) 이민진(외래·응급실간호팀) 이새미(수술간호팀) 이슬비(입원간호2팀) 김우정(약제팀) 윤효영(외래·응급실간호팀) 최순인(외래·응급실간호팀) 염현주(입원간호2팀) 정다비(입원간호1팀) 김태은(간호수석부장실) 김민윤(진단검사의학팀) 최연호(방사선종양학팀) 이동수(의료정보팀) 차영서(입원간호1팀) 김지선(치과대학병원 통합치의학과) 이지원(용인세브란스병원

입원간호팀) 박미원(적정진료관리팀) 이택근(행정교육팀) 권민정(외래응급간호팀) 권은정(행정교육팀) 이서호(진단검사의학팀) 장대석(영상의학팀) 조민석(방사선종양학팀) 김동재(원무팀) 김수정(외래응급간호팀) 김윤철(기획조정실 경영분석팀) 최가은(디지털헬스실 정보서비스팀)

〈단체〉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 심장혈관병원 심혈관간호팀 심혈관내과계중환자파트(CCU),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1팀 소아활용파트, 연세암병원 입원간호1팀 116병동, 디지털헬스실 정보서비스팀, 사무처 안전보건팀

한편, 의료원은 전임 보직자에게 그간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공로패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이해연 전 의학도서관장, 이강영 전 기획조정실장, 구성욱 전 대외협력처장, 안상훈 전 인재경영실장, 권자영 전 인재개발센터소장이 참석했다.

세브란스병원, NCSI 결과 보고회

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 20일 에비슨 의생명연구소 유일한홀에서 2023년 NCSI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브란스병원은 한국생산성본부(이하 KPC) 담당 위원들을 초청해 2023년 NCSI 결과를 되짚어보고 올해 NCSI 조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브란스병원은 2023년에도 2022년과 동일한 85점을 기록했으며, 병원 서비스 분야 최초로 13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특히 병원으로는 국내 최초로 전체 산업 분야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KPC 주관으로 1998년 도입된 NCSI는 국내에서 판매 중인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에 있는 고객이 평가한 만족도를 측정해 계량화한 국내 대표적인 서비스 품질 지표다. 2023년에는 82개 업종, 34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병원 업종은 총 13개의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 요인은 예약, 접수, 진료, 의사, 간호사, 검사 및 촬영, 수납, 시설 및 환경, 입원 서비스,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11개다.

KPC에서는 세브란스병원의 강점으로 예약서비스와 수납,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선정했다. 세브란스병원은 MY세브란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고도화하고 AI 보이스봇 도입 등을 통해 예약과 수납, 검사 일정 확인의 편의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목소리를 개선의 시작점으로, 환자 입장에서 개선점을 파악하고 있다. 병동 환자의 숙면 방해 요



소를 줄이는 '꿀잠프로젝트', 환자가 안심하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입원 시 불만제기 리플렛을 함께 제공하는 '안심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환자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노력은 병원서비스 분야 13년 연속에 이어 3년 연속 전체 업종 1위로 이끌었다.

개선요소로는 시설 및 환경, 검사 및 촬영 등이 뽑혔다. KPC는 병원 업종 내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 접점별 불편 요인 점검과 빠른 대안 마련을 통해 환자 중심의 병원 서비스 경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용인,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 리더 워크숍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 2일 4층 대강당에서 '2024년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 리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속적인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김은경 병원장, 심소정 간호국장을 비롯한 보직자와 사전 신청을 통해 모집한 질 향상 활동, 환자안전 부문 교육생 4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박인영 이사(전 강남세브란스병원 적정진료관리팀장)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의 중요성' 특강으로 시작했다.



이후 워크숍은 두 부분으로 나눠 교육을 진행했다. 질 향상 활동 교육은 활동 단계 및 도구, 보고서 작성, 활동 실습 등의 내용으로, 환자안전 활동 교육은 환자안전 개념, 근본원인 분석(RCA) Toolkit, RCA 실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외래응급간호팀, 입원간호팀 등 다양한 부서에서 참여한 교육생들은 환

자안전 리더로서 향후 1년간 분기별 환자안전 모니터링 조사자로 참여하게 된다.

한편,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 3년간 매년 질 향상 촉진자(QI Facilitator) 및 환자안전 파트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질 향상·환자안전의 기초적인 인프라를 구축했다.

강남, 우수진료과 및 우수 교수 시상식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지난달 22일 대강당에서 2023년도 우수진료과 및 우수교수 시상식을 진행했다.

교원자격심임위원회는 연1회 평가하는 진료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진료행위 분야에서 지표가 우수한 진료과와 교수를 선정한다.

우수진료과에는 내분비내과, 안과, 치과보존과가 선정됐다. 우수교



수로는 의대 김석모 교수(강남 갑상선내분비외과), 최훈영 교수(강남 신장내과), 서지원 교수(강남 심장

내과), 김성한 교수(강남 정형외과)가 수상했다.

“의료진은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사”

심정지 환자,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감사 편지 전해

강남세브란스병원 81병동에 입원했던 신병호 씨(68)는 지난달 14일 퇴원 수속을 밟기 전 의료진에게 손편지 하나를 건넸다.

“길에서 쓰러진 저를 도와준 두 분의 행인이 아니었다면,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윤영원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중환자실과 81병동 선생님들의 케어가 아니었다면 오늘 제가 걸어서 퇴원할 수 없었겠지요. 이 모든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국 LA에서 거주하는 신 씨는 조카 결혼식에 참석차 귀국했다가 지난달 5일 길에서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졌다. 함께 있던 신 씨의 부인은 평소 남편이 심장에 지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휴대전화가 없어 119에 신고할 수 없었다. 신 씨의 부인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심폐소생술을 부탁하고, 50m 거리에 있는 편의점으로 달려가 119 신고를 요청했다.

신고 5분 만에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심폐소생술 중이던 행인에게 한지를 인계받고, 출동 16분 만에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로 신 씨를 이송했다. 공휴일이었지만 당시 당직 중이던 의대 윤영원 교수(강남 심장내과)는 응급 관상동맥조영술 후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 신속하게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진행했다. 심정지 후 뇌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저체온 요법도 함께 시행했다.

심정지 이후 필요한 조치들이 빠르게 이뤄졌지만, 의료진은 신 씨가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 우려했다. 병원 밖에서 심정지가 발생할 경우, 환자가 뇌손상이나 추가 합병증 없이 정상 회복할 확률은 10~20%밖에 되지 않는다. 신 씨의 경우 병원 이송 중 세 번의 심정지가 와서 예후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다행히 신 씨는 심근경색이 발생한 지 나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고, 심장혈관집중치료실(CCU)에서 81병동으로 옮긴 지 5일 만에 다른 합병증 없이 정상 퇴원했다.

81병동 임지연·권다혜 간호사(입원간호2팀)는 “심정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환자였던 만큼 신체적 기능의 정상 회복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지지도에 신경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난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래오래 소중한 삶 지켜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치의였던 윤영원 교수는 “응급 상황 발생 당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행인이 주변에 있었던 것, 구급대원의 빠른 출동과 올바른 처치, 그리고 병원의 응급진료 시스템이 잘 맞물려 좋은 결과를 이끌었던 것 같다”며 “환자가 합병증 없이 퇴원하며 감사하다고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것에 저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게시판』

의대 이지현 강사(산부인과학)가 지난달 12일 서울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 강사는 여

성 생식기에 발생한 흑색종 환자 대상 전질 절제술, 회음부 림프절 절제술, 근치적 자궁 절제술, 골반 감시립프절 절제술 등 다양한 수술을 단일공 로봇수술로 진행했을 때 개복수

술에 대비해 우수하다는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로봇수술을 진행하면 빠른 회복은 물론 환자 통증 경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의대 채현욱 교수(강남 소아청소년과)가 지난달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소아내분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학술상(KSPENDO상)을 수상했다. 채현욱 교수는 최근 3년간

SCI(E) 등급 학술지에 19편의 논문을 게재하며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소아내분비학 연구 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정경진 연세하늘치과의원 원장 2억원 약정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1억원



치과대학 발전기부금

정경진 연세하늘치과의원 원장(치대 92년 졸)이 치과대학 발전기부금 2억원을 약정하고 3000만원을 후원했다.

지난달 21일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정경진 원장과 금기창 의료원장, 이기준 치과대학장이 참석해 후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경진 원장은 “대부분의 치과대학 동문들은 모교를 위해 도움이 되고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섣뜻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학장님

께서 먼저 후원 제안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또 “치과대학 발전을 위해 100억 이상 모금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큰 금액을 약정해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의료원에서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치과대학과 함께 발맞춰 나아가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정경진 원장은 이번 약정액을 완납할 경우 누적 2억 1000여만원을 후원하게 된다.

세브란스 응급진료센터 발전기부금 재활병원 장애인의료재활후원금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이 세브란스 응급진료센터 발전기부금과 재활병원 장애인의료재활후원금으로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전했다.

지난달 16일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장세환 서린상사 대표와 금기창 의료원장, 조성래 재활병원 원장, 이상길 대외협력처장, 정현수 응급진료센터 소장, 한웅규 발전기금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후원에 대한 감

사의 뜻을 전했다.

장세환 대표는 “아버님을 대신해 저희 가족에게 항상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시는 세브란스에 감사를 전한다”며 “응급 질환 소아환자들이 쾌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의료원을 향한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며 “후원금은 목적에 맞춰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후원을 통해 영풍그룹 장형진 고문은 의료원과 소중한 첫 인연을 맺게 됐다.

장명호 휴먼터치 회장 1억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위장관외과 발전기부금

장명호 (휴먼터치 회장)이 강남세브란스병원 위장관외과 발전기부금으로 1억원을 전했다.

장명호 회장은 “위장

관외과 노성훈 교수의 진료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후원을 결심했다”며 “노성훈 교수를 포함한 강남세브란스병원 위장관외과의 발전을 기원하며 기부금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번 후원을 통해 장명호 회장은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소중한 첫 인연을 맺게 됐다.

허지영장학재단 6650만원

의과대학 대학원 의학과 장학기부금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

재단법인 허지영장학재단에서 의과대학 대학원 의학과 장학기부금으로 5000만원,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으로 1650만원 총 6650만원을 후원했다.

허지영장학재단은 2020년부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암 치료 연구를 진행하는 대학생들의 장학금 지원도 시작했다.

한편, 허지영장학재단은 허동수 GS칼텍스 명예회장이 먼저 소천한 딸을 기리기 위해 설립했으며 암투병 중인 사회구성원들을 돕고 있다. 지금까지 세브란스에 3억 1000여만원의 후원금을 전했다.

김기웅 후원자 6000만원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 어린이병원 발전기부금

김기웅 후원자가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 4000만원, 어린이병원 발전기부금 2000만원 총 6000만원을 후원했다.

김기웅 후원자는 세브란스의 우수한 진료

와 의료진들의 헌신에 감명받아 앞으로도 의료원이 꾸준히 발전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후원금을 전했다.

한편, 김기웅 후원자는 이번 후원을 통해 누적 기부총액 1억원을 달성하게 됐다.

김정호 연세대 명예교수 5000만원



의과대학 발전기부금 진단검사의학교실 발전기부금 용인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김정호 연세대 명예교수가 의과대학 발전기부금 2000만원, 의대 진단

검사의학교실 발전기부금 1000만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2000만원 총 5000만원을 전했다.

최근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김정호 명예교수와 금기창 의료원장, 이은직 의과대학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 등

이 참석했다.

김정호 명예교수는 “퇴직을 할 때면 그간 몸담았던 기관에 후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동안 의료원에서 근무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기부의 소회를 밝혔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김정호 교수님께서 항상 많은 후배들의 모범이 돼주셨던 분”이라며 “모교를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료원을 이끌어 나아가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번 후원을 통해 김정호 명예교수는 누적 1억 30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전하게 됐다.

유티루 후원자와 스킨푸드 3000만원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

메이크업, 브이로그, 생방송 등 3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티루 후원자와 스킨푸드가 협업 마케트를 통해 올린 수익금 일부인 3000만원을 기부했다.

최근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유티루 후원자 및 스킨푸드 관계자, 한웅규 발전기금사무국장, 심규원 세브란스병원 소아신경외과장 등이 참석했다.

유티루 후원자는 “이번 스킨푸드와의 협업을 통한 수익금을 후원하게 돼 기쁘다”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환아들에



게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기부의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후원금은 저소득 소아신경외과 환자들의 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1000~3000만원 기부

의과대학

- 김계숙 후원자 유방암정밀의학연구소 연구기부금 1000만원
- 조인창 비아미오성형외과 원장(의대 75년 졸) 성형외과학교실 발전기부금 1000만원
- 의대 이용찬 교수(내과학, 의대 87년 졸)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 2000만원
- 정재림 아이준안과의원 원장(의대 96년 졸) 안과학교실 발전기부금 1000만원
- 나경두 아이준안과의원 원장(의대 04년 졸) 안과학교실 발전기부금 1000만원

치과대학

- 최재현 후원자 발전기부금 1000만원

- 박종진 연세네이버치과교정과 원장(치대 95년 졸) 발전기부금 1000만원

세브란스병원

- 신수동교회 사회사업후원금 1011만원

심장혈관병원

- 고 정현자 후원자 발전기부금 2000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 김충한 (주)한국이앤엑스 회장 새병원 건립기부금 2000만원
- 김진현 후원자 유방암센터 발전기부금 1000만원
- 김영준 아이준안과의원 원장(의대 07년 졸) 안과 발전기부금 1000만원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사로 전하지 못하는 기부 내용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편집자 주

동창회소식

치대 동문회 자선골프대회 성료

치과대학 동문회가 주관한 제23회 동문회장배 자선골프대회가 4월 28일 경기도 이천 뉴스프링빌 CC에서 성료했다.

행사에는 이정욱 회장(91년 졸)을 비롯해 이기준 치대학장(94년 졸), 정영수 연세대 치과대학병원장(95년 졸), 박정원 강남세브란스치과병원장(94년 졸),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강종규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87년 졸),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 총회 홍순호 부의장(79년 졸),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87년 졸), 전성원 경기도치과의사회장, 백명환 신협 이사장, 함동선 서울시치과 의사회 부회장, 안치홍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동문회장, 기세일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경인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동문 및 내빈 총 104명이 참석해 26팀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메달리스트에는 김인수 동문(88년 졸, 70타)이, 준메달리스트로는 윤형철 동문(93년 졸, 72타)이 이름을 올렸다. 신페리오 우승은 장지영



동문(97년 졸), 준우승은 성의향 동문(05년 졸)이 차지했다. 또 기별 대항전에서는 합산 223타를 친 32기(05년 졸, 성의향·이동원·서백건)가 우승했다. 이날은 윤용환 동문(03년 졸)이 홀인원을 하고 조병용 동문(97년 졸)이 이글을 기록했다.

이번 자선 골프대회에 참가한 회원들의 기부로 모인 소정의 금액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정욱 동문회장은 “자선골프대회에 항상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라며 “올해 가을에 열릴 예정인 연이동문 50주년 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치대 홍보대사 연아랑, 첫 교내투어



치과대학 학생 홍보대사 연아랑이 지난달 20일 고등학생들을 초청하고 교내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아랑은 연세치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학생들이 결성한 집단이다.

교내투어 진행을 위해 홈페이지와 SNS에 모집글을 올렸고, 신청한 학교 중 서울에 위치한 상암고와 아산에 있는 충남삼성고 학생 10명을 초대했다.

연아랑은 치대를 찾은 학생들에게 연세치대와 연아랑을 소개했고 투어 일정을 안내했다.

첫 일정으로 치대 박물관을 방문해 근대치의학을 이끈 연세치대의 역사를 둘러보고, 원내생 진료실로 자리를 옮겨 치대 학생들의 실습과정

을 참관했다. 이후 치실질 교육 및 실습과 진단 모형 만들기 및 레진 치료, 치아 삭제 등 다양한 교육과 실습이 이어졌다.

체험 활동이 끝난 후에는 간단한 퀴즈 이벤트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아랑은 참여해준 학생들을 격려하며 기념품을 증정했다.

투어 마지막 코스로 학생들은 치대 연아미디엄당과 연세대 언더우드관, 독수리상을 둘러보며 기념사진도 촬영했다.

학생들은 투어 전반에 대해 매우 만족을 표하며, 연세치대와 치의학학을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을 제공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1천만원 미만 기부건(재직 교직원 급여공제, CMS제외)

(3.1-3.31)

의료원 (발전기부금) (주)백퍼센트 HelenBowling 김경아이사이민현 김대환 김동진 김민재 김사가 김영숙 김영철 김정주 김현실 민병철 민재원 성실교회 유남순 이규래 이산 이정재 장용선 정재숙 최종빈

외과대학 (발전기부금, 서울지원금, 신축기부금, 연구 및 연구소 기부금, 장학기부금) (재)성남시장학회 (재)용운장학회 (재)항실서석조박사 기념사업회 (주)부영주택 강정홍 강기원 강승하 강신애 강종화 고기은 송승일 고이라 박재식 김규태 김기용 김달현 김덕진 김도담 김동욱 김동진 김문아 김미라 김민우 김방현 김보영 김선규 김영구 김영기 김은경 김의현 김인성 김재원 김정한 김정호 김주섭 김주희 김준식 김준형 김진영 김진현 김찬우 김철 김태균 김한식 김현규 김형규 김형일 김형중 김효진 나비푸드 노은비 류동열 류재규 민정환 민희준 박석우 박선아 박영희 박용지 박재민 박재현 박정호 박주아 박한정 배우은 백승 백승재 부성돈 부영준 서정현 설준태 손기혁 손홍석 송금순 송민식 송윤영 송은규 신화진 심동준 심상수 안창수 양기원 양성순 양학진 오상훈 오정택 오현식 우찬영 원종윤 유수정 윤용노 이강석 이규엽 이꽃실 이남선 이다혜 이상주 이상진 이영환 이재훈 이정은 이정준 이정표 이종수 이종희 이차영 이혜연 이혜정 임길채 임성규 임준원 장상호 장성구 정승원 정예리 정재욱 정현택 조미영 조순이 조준호 조철호 주양원 주진우 차경빈 천근아 천선희 최원준 최윤영 최윤희 추성필 한상인 한재욱 함석진 홍문기 홍사민 홍새롬 홍의표 홍준호 홍창의 홍현준 황성원 황지혜

치과대학 (발전기부금, 장학기부금) (주)부영주택 (주)영고 강동림 강용구 강우진치과의원 강종구 강종미 고지영 구본석 권주현 김건민 김경록 김근배 강남훈 김동준 김래규 김무성 김민석 김백일 김보경 김성현 김선근 김선영 김선재 김성희 김세중 김영범 김재신 김재영 김중태 김중현 김중현 김태윤 김태현 김태형 김현아 김호중 김홍준 노원기 도레미 류현주 박노제 박민수 박승남 박종찬 배정식 배정운 배정철 변영섭 서광원 서지영 송원김영환장학재단 김현정 김호영 김효권 김효동 김효숙 노동조 노영채 노태규 대한예수교장로회기쁜소식교회 마한주 문순임 문영일 문현용 박경민 박다운 박명자 박명화 박새람 박소현 박수진 박아영 박윤선 박은희 박은하 박준상 박준성 박종현 박찬우 박채수 박태현 박해선 박해숙 박희영 방명환 배승남 배재욱 백상삼 백창숙 북한이탈 주민지원재단 분당지구총교회 서동훈 선진기전(주) 성공재 세상속으로가는 요가원 책들 손인숙 손태경 송상훈 신외순 신윤식 신은혜 신인철 신지선 신형진 심재용 안상호 안철민 양우선 양정윤 엄소연 엄창환 오계수 우동호 윤경희 윤봉선 이종섭 이기린 이동순 이명자 이명희 이미화 이민우 이분화 이상주 이상혜 이상희 이수천 이수우 이애경 이영란 이영지 이옥순 이윤산 이윤희 이은정 이장우 이종민 이창호 이철우 이충근 이형선 이홍재 임성규 임성우 임소민 장미옥 장성구 전대근 전수영 전영철 전하라 정가영 정광익 정달홍 정대희 정영일 정선영 정의석 정철 정철오 조동희 조순현 조아라 조연진 조희정 주병규 주재열 진예림 진정현 진하준 천옥순 천준영 최경순 최경태 최기욱 최성현 최소원 최수희 최승호 최승호 최솔 최옥희 최윤영 최자영 최재남 최중혁 최준원 최홍식 최희원 하늘씨앗교회 하영란 한국유방건강재단 허수창 호용아카데미 홍범기 홍인영 홍정식 황인애 황해진

간호대학 (발전기부금, 장학기부금) (재)삼공장학회 (재)인성장학문화재단 권서현 김민지 김보환 김선아 김영희 김예슬 김원자 김지수 김호곤 박민경 선우장학회 송원김영환장학재단 신라문화장학재단 양승현 윤예슬 이재준 이자연 이혜숙 이혜연 이호진 일주학술문화재단 조원정 최원미 최지연 한재원 홍근표

보건대학원 (발전기부금) 김수정 우병호 이희주 정우진 한순옥 한희중

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사회사업후원금, 원목실 헌금 및 후원금) (사)굿피플인터내셔널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재)천주교한미음한몸운동본부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주)뉴로발해운 (주)월안와우 강경남 강선영 고대우 고재일 공동모금-원목실 김규원 김다경 김대원 김도연 김도현 김동규 김성진 김연소 김영곤 김예지 김윤홍 김은경 김정훈 김지은 김진아 김찬민 김태형 김현정 김형일 나ومی 맹승렬 박민재 박병식 박상현 박소영 박아영 박주연 박희진 배민영 배은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참빛교회 서은혜 성용웅 송성광 신금식 신문현 심소현 안민기 안수연 양종근 여철규 오지선 우성진 우지운 윤정숙 이간민 이도근 이동식 이상원 이상현 이세진 이수진 이순제 이승규 이인준 이춘호 이택규 이현수 이홍철 임보미 임은경 임일권 임지현 임지훈 장현주 전혜영 정다인 정인혜 창천교회 천세영 최다운 조성찬 조선제 종교교회 주해민 주호중 천윤철 최석순 최우진 최유리 최지훈 최진호 최형철 하진규

암병원 (발전기부금, 원화의료센터 후원금) (주)엠티플로우 강성희 고경환 기성민 김기세 김세연 김은하 김창무 김창호 김재현 김태은 김혜진 박다현 박보경 서예준 송현규 심태보 양근혁 양희진 유재우 윤명희 윤성식 이병훈 이상근 이상순 이만나 이종례 이준환 이한결 임정아 임정영 임지현 임지훈 장현주 전혜영 정다인 정인혜 창천교회 천세영 최다운 최선재 최소영 플레이올라 한성준 한예준

재활병원 (발전기부금, 장애인의료재활후원금, 장애인사회재활후원금) 김푸름 박재우 오박영 유준희 육근미 윤도웅 이원미 임성규 장성구 진경련 천준경

심장혈관병원 (발전기부금, 사회사업후원금) 고종석 구보환 구철희 권순연 권지은 김명옥 김미진 김봉섭 김형수 김혜민 박성모 박우현 박혜영 배명일 배한수 서금순 서이준 송근호 송영 송익식 송태선 심영재 심영훈 안형이 오호례 유승연 은영표 이수민 이용철 이은숙 이재한 임희철 정지연 조영은 조진선 최소익 홍성석 홍용우

어린이병원 (발전기부금, 사회사업후원금) 강지수 권원좌 김상진 김태석 라영환 류창욱 박현경 방윤지 배기욱 신우진 안상준 안소현 안진용 안초현 여세은 오현주 유승진 유혁재 윤승희 이상은 이소영 이수민 이정표 이종돈 이주는 이현재 임아람 장필식 정병호 조만호 조병상 조성현 조현범 한채린 하윤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축기부금, 발전기부금, 연구발전기부금, 사회사업후원금, 의료선교후원금, 원목실 헌금 및 후원금) (사)대한적십자사 (주)KT&G 남서울본부 (주)백퍼센트 (주)샌드빅서전 BIBGL 강남 원목실 강동현 강성영 강성민 강윤주 강진숙 공재철 공형석 권두환 권순자 김설희 김경석 김경식 김기숙 김대중 김도현 김동규 김동진 김동현 김민기 김명규 김명수 김명신 김미영 김미희 김민규 김병규 김병무 김순달 김영안 김영상 김영섭 김용기 김유안 김유정 김종민 김중하 김주섭 김주현 김준수 김지훈 김찬용 김철원 김태연 김태은 김현정 김호영 김효권 김효동 김효숙 노동조 노영채 노태규 대한예수교장로회기쁜소식교회 마한주 문순임 문영일 문현용 박경민 박다운 박명자 박명화 박새람 박소현 박수진 박아영 박윤선 박은희 박은하 박준상 박준성 박종현 박찬우 박채수 박태현 박해선 박해숙 박희영 방명환 배승남 배재욱 백상삼 백창숙 북한이탈 주민지원재단 분당지구총교회 서동훈 선진기전(주) 성공재 세상속으로가는 요가원 책들 손인숙 손태경 송상훈 신외순 신윤식 신은혜 신인철 신지선 신형진 심재용 안상호 안철민 양우선 양정윤 엄소연 엄창환 오계수 우동호 윤경희 윤봉선 이종섭 이기린 이동순 이명자 이명희 이미화 이민우 이분화 이상주 이상혜 이상희 이수천 이수우 이애경 이영란 이영지 이옥순 이윤산 이윤희 이은정 이장우 이종민 이창호 이철우 이충근 이형선 이홍재 임성규 임성우 임소민 장미옥 장성구 전대근 전수영 전영철 전하라 정가영 정광익 정달홍 정대희 정영일 정선영 정의석 정철 정철오 조동희 조순현 조아라 조연진 조희정 주병규 주재열 진예림 진정현 진하준 천옥순 천준영 최경순 최경태 최기욱 최성현 최소원 최수희 최승호 최승호 최솔 최옥희 최윤영 최자영 최재남 최중혁 최준원 최홍식 최희원 하늘씨앗교회 하영란 한국유방건강재단 허수창 호용아카데미 홍범기 홍인영 홍정식 황인애 황해진

웅진세브란스병원(발전기부금, 사회사업후원금, 원목실 묵회기금) (주)카페에 기수진 김기철 김동순 김푸름 박근애 분당지구총교회 연호영 웅진주일에배한금 우병숙 유광근 이세미 장삼미 장진규 정영준

치과대학병원 (발전기부금, 사회사업후원금) 웰컴저축은행주식회사 은선진 이상봉 홍용선

의료선교센터 (발전기부금, 선교 및 선교사 후원금, 의료선교후원금, 의료선교 교육기금) (재)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 (재)대한예수교장로회 일산온정별교회유지재단 (재)성서침례교회 0331선교부 강남동산교회 강남비전교회 강신혜 고양동산교회 객수산나 광주거씨교회 권예은 김만식 김나희 김수아 김현영 김호택 나라예 난곡제일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늘푸른교회 대구 동산교회 대한예수교성민교회 베이직처치 상영교회 새벽교회 샘물교회 서울교회 서울남교회 서울은현교회 서울은혜교회 서울제일교회 서재민 선한목자교회 세계로교회 손기혁 송탄중앙침례교회 수영로세계선교회 신생교회 신영산교회 신일교회(선교부) 신전수 신촌중앙침례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감리교회 안강중앙교회 연대인사팀 연동세션 연희교회 예능교회학교 예장영광교회 오지영 온사랑교회 와우리교회 왕성교회 우면동교회 우원기 윤경애 은진원 은평광명교회 이경덕 이수정 이일학 이장훈 인천성산교회 장병식 장석교회 장성구 장위제일교회 전주온누리선교회 주내교회 주안교회 지구촌교회 천안장로교회 천정범 최덕환 충신교회 케임브리지한인교회 평안교회 평촌새중앙교회 포항총진교회 한상호 행복나눔교회 홍주의

원목실 헌금 및 후원금 객수산나 대한예수교장로회 남대문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 연산교회 차정현

기고 | 최원규 의료선교센터 선교사 - 라오스 의료봉사 후기

하나님의 유연성

1. 흔한 일이지 뭐
2. 할 수 없지 뭐
3. 그러시라고 그래

1990년대 어느 몽골 선교사님이 종이에 써서 책상앞벽에 붙여놓은 글귀다. 아마도 몽골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 같다. 황당한 일이 생기면 우선 ‘흔한 일이지 뭐!’, 무슨 일이 애를 써도 안되면 ‘할 수 없지 뭐!’, 고집이 센 사람을 만날 때는 ‘그러시라고 그래!’,

실제로 선교지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당황스러운 일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 오랫동안 선교지에 있던 베테랑 미국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flexibility)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한 것 같다.

올해 초 제3차 라오스 쏘싸녹 마을 의료 봉사를 위해 준비를 나름 철저히 했다. 예전에 진료했던 성형외과와 내과, 소아과 팀과 더불어, 처음으로 치과와 안과, 재활보조기 팀도 함께 했다. 진료에 필요한 물품과 약품들도 비교적 잘 준비했다. 또한, 라오스 공항에서도 통관이 원활히 이뤄졌다. 유대현 교수가 말했듯이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했다. 1년 만에 만나는 쏘싸녹 한센병 환자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안고 첫날을 비엔티안 수도에서 체류했다.

둘째 날 쏘싸녹 보건소로 이동해 기다리고 있던 마을 리더십과 보건소 소장 등의 환영을 받았다. 서로 환영하고 감사하는 인사를 나눈 후, 다음날 진료를 위해 방을 정비하고 기구와 약품을 진열했다. 숙소에 돌아와 내일의 진료를 기대하고 잠이 들 무렵 예측하지 못한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상급 정부로부터의 진료 허가를 받지 않아 내일 진료가 어렵게 됐다는 보건소장의 연락이었다. 늦은 밤에 일부 팀원들과 함께 급히 보건소로 이동해 진료를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을 철수해야만 했다. 나는 다음날 새벽, 밤새 일어난 일을 모르는 팀원들에게 마음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유연성’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평안하신지요?”

어젯밤에 뜻하지 않은 일이 있어 오늘 진료가 어렵게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다른 일정으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보건소에 도착해 오늘 진료를 준비할 때, 우연히 있던 정부 관계자가 우리 사진을 찍어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이는 오늘 진료행위 시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됐습니다. 보건소와 마을 동장 등의 리더십이 회의를 하고 어젯밤 우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밤늦게 선교사들과 논의했고, 팀의 일부가 보건소를 다시 방

문해 진료를 위해 준비했던 것을 정리했습니다.

보건소 소장과 동장은 매우 호의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맞이했으나, 중앙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기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인 라오스에서 외부인의 의료활동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뜻밖의 상황에 함께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매뉴얼에 있는 오늘 묵상 말씀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함께 기도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소식 중에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눴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를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소서.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과 사랑 가운데 허락된 것인 줄 알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2. 이번 일로 인해 보건소와 마을의 리더십, 함께 하시는 선교사들의 사역 그리고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 기대했던 마음과 아쉬운 심정을 위로 하소서.
3. 무엇보다도 쏘싸녹 마을의 사람들, 몸과 마음의 연합함으로 공통



받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친히 치유하고, 위로하며 평안을 허락하소서.

4. 이를 위해 헌신한 우리 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주의 선함에 의지해 기도합니다.

5. 앞으로의 일정 또한 주께 맡깁니다. 주가 보시기에 합당하게 결정하고 따라가도록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결국 우리 팀이 준비했던 진료를 하지 못했다. 대신 조를 나눠 마을 사람들을 방문했다. 매주 한센병 환자와 가족을 만났던 선교사와 동행했다. 준비한 도시락과 카스테라 간식을 가지고 방문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청진기를 내려놓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 심장 소리를 듣지는

못했지만 쏘싸녹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느끼려고 했던 시간이 귀히 여겨진다.

우리 팀 14명과 한국,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 11명이 함께 모였다. 계획에 없었지만 진료하지 못해서 얻은 시간에 교제를 통해 선교사들의 살아오고 살아갈 이야기를 나눴다.

철거당하는 삶에서 자란 자를 관계를 세우는 자의 사명으로 부르신 이야기, 나를 라오스에 보내야만 할 정도로 라오스 사람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 ‘귀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온 이야기, 중국에서 강매 같이 지내며 감옥에도 들락거렸던 한 청년이 할머니의 허리를 고쳐준 하나님을 만나 한국 선교사에게 성경을 배우고 미얀마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며 라오스에서는 모든 삶으로 선교하는 이야기 등 여러 사람을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부르고, 소외되고 버려진 것 같았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섬김을 준 유연한 하나님의 이야기에 감동이 됐다.

기고 | 강남세브란스병원 김상범 사무원(의료정보팀)

짐바브웨 이야기: 겨자씨가 꽃이 되어

작은 겨자씨는 너무 작아 눈에 띄지도 않고 약한 비람에도 포르르 포르르 구르다 보니 땅에 정착해 싹을 틔우기에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다. 결국 곁을 멈추게 하는 노란 꽃을 피우게 되는 시간을 마주하게 되기까지 그분의 돌봄이 없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짐바브웨에는 가예, 린다, 마이클, 조엘 이렇게 4명의 현지 스텝이 30명 정원의 치어지플레이센터(영어 유치원)와 50명 규모의 무료급식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그 재정은 외부 후원자들과 강남 1% 나눔 기금의 도움으로 충당하고 있다. 오늘은 부부 선교사가 파송됐던 짐바브웨에 작은 겨자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성장 드라마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목회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들이 목회자를 양성하고 교회를 개척해 나가듯, 교육과 빈곤 아동 건강을 위한 급식

사업을 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를 양성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센터를 개척했다. IT 강국답게 매일 원격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그들은 2세대 현지 선교사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그리고 또한 한 번의 세대 분리를 통해 3세대 청년 사역팀의 성장이 시작되고 있다.

12년 전 부부 선교사가 함께할 당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던 대학생 린다와 홀로 아들들을 키우는 싱글맘이었던 가예, 그리고 지금은 하늘나라로 떠난 노지포의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대학생과 싱글맘에서 유치원 교사로 성장하고 지역사회 아동을 돌보는 그들의 2세대 사역 이야기는 종종 화자되고 있기에 오늘은 마이클의 성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마이클은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지금은 짐바브웨 대학을 졸업한 수재로 치어지플레이센터에서는 영어 성

경 수업과 외부견학 프로그램 그리고 행정 처리 전반 등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수년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정식 PVO 허가를 받아 청년봉사단의 단장으로 활약 중이며 치어지플레이센터를 모티브로 한 아동 돌봄센터 또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초기 지원이 없이 자신의 급여로 최소한의 밀리밀(옥수수 가루)과 손수 심은 채소로 한 끼 급식을 나누고 아이들의 방과 후 학습지도 교실을 시작했다. 놀라운 것은 그 청년 단체의 구성원들은 우리가 직원 선교사로 사역 당시 유치부 학생들로 정철영이 성경학교 요한복음 말씀과 찬양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지금의 방과 후 교실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며 3세대 선교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들은 코로나로 중단했다가 2023년 추석 연휴를 이용한 의료선교 봉사팀 방문 시에 하라레 공항에 나와 근사



한 민속춤 축하 공연을 해주며 짐바브웨 이야기를 모던 팀원들에게 감동을 선물했다.

시간에서 의미하는 12는 완전을 뜻하는 세상 이치의 숫자로 익숙하게 만나게 되는데 12달, 12시간, 성경 안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12제자와 야곱의 12 자녀 그리고 12지파 등이고,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숫자로 여겨진다. 2012년 파송 후 지난 세월 12년, 그리고 3세대 사역. 굳이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며 설명하는 이유는 겨자씨가 꽃이 피어 열매 맺기를 함께 기도해 달라는 당부의 마음이 숨어 있다.

앗혀 갈 때쯤 다시 떠오르는 2012년의 그 날, 의료원에서는 3명의 직원자격 첫 선교사 파송이 있었다. 케냐로 1명, 짐바브웨로 2명 그 세 명의 신분의 변화는 있었지만 지금도 세브란스와 함께 현장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시작하신 이도 그이시고 이를 이어가신 이도 그이며 앞으로 이어가실 이도 그이다.

세브란스의 이름으로 시작한 이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중단되지 않고 잘 정착돼 짐바브웨에서 새롭게 쓰 내려가는 셋노란 겨자 꽃밭 하늘나라 이야기가 되길 소망한다.